

여수·순천시 코로나 확산세 지속에 철퇴 들었다

여수시 '역학조사 속이면 관용 없이 경찰 고발' 무관용 원칙 순천시 '나이트클럽발' 확진자 속출에 공무원 8명 대기발령

전남 동부권에서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여수시가 역학조사 과정에서 허위 진술이나 고의 누락, 은폐 등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경찰에 고발조치하기로 하는 등 강도 높은 대응에 나선다.

17일 여수시에 따르면 시는 코로나19 확진자의 역학조사 과정에서 동선을 허위 진술하거나 누락은 폐하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경찰에 고발한다. 여수에서는 최근 역학조사 중 유흥주점 종사자

부와 동선 등 일부를 숨기고 거짓 진술하거나, 자가 격리 중 방역수칙을 어기고 가족 간 접촉으로 감염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여수시는 자가격리 기간 방역수칙 위반으로 가족 간 전파가 발생할 경우 고발은 물론 구상권 청구 등 강도 높게 대응하기로 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거짓 진술 등을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순천시의 조치는 보다 강력하다. '나이트클럽발' 코로나19 확진자가 최근 속출한 가운데 순천시가 공무원 8명에 대해 대기 발령을 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섰다.

순천시는 지난 11일부터 다수 확진자가 발생했던 관내 업소를 출입한 순천시청 공무원 8명에 대해 17일자로 총무과 대기발령 조치를 내렸다.

이들 공무원들은 해당 업소에서 최초 확진자가 발생하기 3~4일 전 출입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코로나 검사 결과 출입 공무원 중 확진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여수시 관계자는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해 가족 등에게 바이러스를 확산시킬 경우 고발은 물론 구상권 청구 등 강도 높게 조치한다는 방침이다"며 "타 지역 방문과 외출을 자제하고 확진자 접촉의 심 또는 코로나19 증상이 있을 경우 즉시 선별진료소를 찾아 진단검사를 받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 동부권에선 주말 사이에도 여전히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졌다.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16일 하루 도내에서는 모두 11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으며 이 중 7명이 여수지역 거주자다. 3명은 가족 간 감염과 유흥주점발 기원 확진자 접촉 등으로 감염됐으며, 2명은 감염 경로를 조사 중이고 2명은 해외 입국이다. 인근 고흥군에서도 2명이, 목포·순천에서도 각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청소년 코로나 스트레스 싹! 순천시 내달 5일 e스포츠대회

순천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쳐있는 청소년들에게 활력과 즐거움을 제공하기 위해 다음달 5일 '순천시 청소년 e스포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대회 종목은 '리그오브레전드'로 단체전(5인 1팀)으로 진행되며, 총 16개 팀을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순천시에 있는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순천시에 거주하는 15~19세 청소년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대회 진행은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준수하기 위해 예선과 결선 모두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청소년은 순천시 청소년수련관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오는 25일까지 순천시 청소년수련관에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순천시 관계자는 "e스포츠는 단순한 오락이 아닌 대중 스포츠이자 새로운 여가 활동으로 청소년 문화로 자리 잡았다"며 "순천시 청소년 e스포츠대회를 통해 코로나19로 위축된 청소년 활동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건전한 청소년 게임 문화 조성을 통한 진로 영역 확산의 장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순천=김은종 기자 ejkim@kwangju.co.kr

광양 '착한가격업소' 신청하세요

시, 25일까지 접수...음식점·세탁소 등 개인서비스업종 지역화폐 카드 지급 등 인센티브 확대...31일 결과 발표

광양시가 물가안정을 위해 노력한 '착한가격업소'에 인센티브를 주는 등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광양시는 착한가격업소 지정 신청 공고를 하고 오는 25일까지 기존 업소 정비와 신규 지정을 위한 신청서 접수를 실시한다.

착한가격업소는 각종 원자재 가격 인상에도 불구하고 물가안정을 위해 저렴한 가격에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소로 광양에는 현재 49곳의 착한가격업소가 지정됐다.

신청대상은 음식점, 이·미용, 세탁소, 목욕업 등 개인서비스업종으로, 신청을 희망하는 업소는

공고문에 첨부된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거나 읍·면·동장 또는 소비자단체 추천으로도 가능하다.

위생 모범업소의 경우 가격이 지역 평균가격 이하일 경우 우선 지정하고 지역사회 봉사활동, 특정 계층과 사회약자 배려 등 사회적 가치실현을 위해 노력한 업소에는 가점을 부여한다.

착한가격업소 선정결과는 오는 31일 광양시 홈페이지에 공고할 예정이며 선정된 업소에 대해서는 착한가격업소 인증서와 인증표창을 제공한다.

광양시는 더 많은 업소의 참여를 위해 지정된

업소에 대해 올해 처음으로 광양사랑상품권 카드(5만원 상당)를 지급한다.

동시에 종량제 쓰레기봉투를 지급하고 향후 추진할 광양시 소상공인 시설개선, 경영혁신 지원사업 대상 업소 선정 시 가점도 부여할 계획이다.

다만, 프랜차이즈 업소나 영업개시 후 6개월 이내 업소, 최근 1년 이내에 휴업한 사실이 있는 업소 등은 착한가격업소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광양시 관계자는 "물가안정을 위해 노력한 업소를 각종 지원사업에 우선 선정하는 등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고흥산 스마트팜 신선채소 대형유통업체에 '첫 선'

롯데백화점 등 전국 20곳에 6t

고흥군이 고흥산 스마트팜 신선채소 6t을 대형유통업체에 처음으로 납품했다.

고흥군은 지난 14일 신선채소를 롯데백화점 본점을 비롯한 전국 20개 매장에 납품했으며, 앞으로 1년 동안 80t을 납품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납품한 신선채소는 유럽식 샐러드 채소로 최근 간편 샐러드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며 인기품목으로 부상하고 있다.

신선채소를 납품한 유일 대표는 "농업기술센터의 청년 창업농 육성 사업으로 구축한 스마트팜 농장에서 신선채소 재배에 성공했다"며 "고흥군의 적극적인 판로 대책 지원으로 판로 문제가 해결돼 매우 기쁘다"고 소감을 말했다.

고흥군 관계자는 "협재 추진 중인 스마트팜 혁신밸리 사업이 완료되면 고품질 농산물의 생산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스마트팜 재배 농산물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유통 경로 확대와 농업인 소득증대를 위한 프리미엄 마케팅 등 다양한 행정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고흥=주각중 기자 gju@kwangju.co.kr

광양시, 한 달간 매실농가 일손 돕는다

24일부터 고령농 등 취약층 우선

광양시가 매실 수확철을 맞아 일손이 부족한 농가를 대상으로 일손 돕기에 나선다.

17일 광양시에 따르면 광양지역 65세 이상 인구는 2만 314명으로 고령화율이 13.5%에 달한다. 농업인은 1만 579명 중 51%인 5390명이 65세 이상으로, 고령화에 따른 일손 부족이 심각한 상황이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부족한 일손을 메워오던 외국인 노동자가 크게 줄어 이종고를 겪고 있다.

이에 광양시는 매실 수확기인 오는 24일부터 1개월 간 일손 부족이 심할 것으로 예상되는 고령농가, 부녀농가, 장기요양 농가 등 일손 취약농가를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농업기술센터와 읍·면·동사무소, 농협 등에 '농촌일손돕기 알선장구'를 개설, 지역 기관, 단체, 기업과 자원봉사자의 일손 돕기 참여를 독려하고, 일손 돕기 자원봉사자와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연결할 방침이다.

일손 돕기 중점 추진기간 동안 일손 돕기를 희망



광양시가 농번기 일손이 부족한 농가를 대상으로 '2021년 농촌일손돕기'를 대대적으로 추진한다. 매실 수확 일손돕기 현장. <광양시 제공>

하는 기관이나 단체, 기업 등은 광양시 농업기술센터와 읍·면·동사무소의 '농촌일손돕기 알선장구'에 문의하면 일손 돕기에 참여할 수 있다.

한편 광양시는 올해 사업비 1억 6000만원을 들여 광양농협과 다압농협에 '농촌고용인력센터'를

설치해 연중 3400명의 농업 분야 인력 공급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농촌인구 감소와 고령화, 계절성에 따른 농촌 일손부족 문제 등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곡성군 바르게 걷기 사업 석곡면 상인 대상 내달 22일까지

곡성군은 석곡면 상인들을 대상으로 바르게 걷기, 맞춤형 컨설팅 등 사업을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골목경제 회복 지원사업 중 하나로 시행하는 이번 사업은 상인들의 활력과 역량을 끌어올려 골목경제를 회복하는 목적으로 진행된다.

바르게 걷기 사업은 오는 6월 22일까지 석곡면 대항강 자연휴식공간에서 주 2회 진행할 예정이다.

상인 맞춤형 컨설팅은 전문가가 점포를 직접 찾아가 경영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해법을 제시한다.

곡성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양한 사업 추진을 통해 상인역량을 강화하고 지역 상권을 살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곡성=박종태 기자 pit@kwangju.co.kr

그린궁 宮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도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